

서바이벌 게임 되어버린 새만금 잼버리

고온 다습 환경에 온열 질환자 다수 발생... 식수·음식 부족·샤워장·화장실 악취 등 호소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 지난 4일 현재 온열 환자가 수백명 넘게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잼버리장의 문제는 △더위 △식수, 음식 부족 △화장실·샤워장 대부족 및 악취 △벌레 △비산 편의점 등으로 꼽았다.

먼저, 8월 폭염과 나무 한 그루 없는 행사장에 장마로 인한 물까지 고여있어서 습도가 높다. 텐트안은 밤에도 35도가 넘는다고 한다. 8월 무더위와 간척지의 높은 습도 탓에 새만금이 후보지로 결정된 8년 전부터 예견된 우려되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한 행사 참가자는 "팔레트 4개 위에 텐트를 치는데 그 구멍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팔레트가 딱딱해 잡자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 물과 음식물이 부족하다.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1일 500ml 정도 밖에 마실수가 없다고 한다. 음식물이 부족해서 허기에 시달리고 있다. 구운 달걀을 조리위에서 제공했지만 곰팡이가 피어서 먹지 못하고 모두 회수했다고 한다. 셋째, 화장실 및 샤워시설이 부족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한창인 지난 3일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병원을 찾은 대원들로 장내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하다는 점이다. 한 참가자는 "어떤 곳은 남녀 공통이고 저녁엔 불도 안 들어왔다고 한다. 거기에 청소도 안 해서 더럽다. 샤워시설이 천막으로 돼 있어 옆에서 안쪽이 다 보이고 내부 시설도 부실해 쉽게 손괴되고 있다"고 전한다. 넷째, 끊임없이 달려드는 모기 등에 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해충방지 스프레이는 뿌려도 소용이 없다. 다섯째, 편의점의 물과 음식값 등

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꼽았다. 100명 가까이 줄을 서고 화장지 2롤에 4,000원을 받는 등 고가라는 평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직위 관계자는 온열 질환자 발생 요인을 설명하며 K팝 행사로 인한 체력소진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K팝 콘서트 탓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일 대원들이 폭염으로 인해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오후 10시 54분께 소방 당국이 중단요청을 했음에도 목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외교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B 언론사에 따르면 "SNS 등에 참가 청소년의 부모들의 댓글이 넘쳐나고 자국정부에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잼버리 조직위와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자국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평택 미군캠프에 합숙시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톨릭기후행동, 전북녹색연합 등 전북지역 13개 시민단체는 "폭염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고, 민노총 전북분부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급히 조성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대자연에서 우애를 나누는 스카우트 정신과 거리가 멀다"며 즉각적인 대회 중단을 요구했다.

/김육기 기자

무량관구조 아파트 합동점검 나선다

전주시, 시민 불안감 해소 위해 9월 말까지 점검·조사

전주시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에 따라 안정성이 우려되는 무량관 구조의 민간아파트에 대해 조사 및 점검에 돌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사 및 점검대상은 지난 2017년 후 준공된 무량관구조 적용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점검 및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점검 결과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점검 전에 자체 조사를 진행해 안전점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의 자체조사는 민간전문가와 합동

으로 △설계도서 검토 △기존 안전점검결과 검토 △입주민 면담조사 △현장 조사 등을 확인·점검해 시민의 신뢰를 높인다.

시는 인천 검단지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설계·시공상 철근의 누락으로 판단하고,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 6곳에 대해 지하주차장 철근 배근 상태 등 시공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무량관 구조로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 조사 및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친환경 소각장 입지선정 본격화

전주시, 공고 결과 입지후보지 3개소 확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주시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에 일조할 '친환경 소각소각장'의 입지선정 절차를 밟는다.

전주시는 공고를 통해 접수된 입지후보지 3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최종 입지선정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군의원·공무원을 포함해 법적 최대 인원인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오전 일정으로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오후 일정으로는 입지후보지 현장 답사, 안전 심의 등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한 입지선정 공고를 통해 접수된 입지후보지 3개소는 주민등록 여부 등 응모 자격에 대한 결격 조항을 거쳐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후보지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이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입지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관할 시군의원 등이 참여하는 만큼,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

해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당한 입지선정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설 예정인 친환경 광역소각장은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한 최적화 권역인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광역화 소각장이며, 규모는 1일 폐기물처리량 500톤이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친환경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들어설 입지를 최종 선정하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작성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친환경 광역소각장을 신규 건립기로 한 것은 상림동 현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의 운영기한(2026년 9월) 만료를 앞두고 기술 진단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광역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친환경 광역소각장 입지후보지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최적 입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및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자원순환과(063-281-28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육기 기자

여름철 폭염 날릴 '전주한옥마을 얼음길'

시, 매주 금·토·공휴일 한옥마을 주요거점 20곳에 조성

전주시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 여름철 폭염을 날려줄 얼음길을 조성한다.

전주시는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이 포함된 8월 4일부터 19일까지 관광객이 붐비는 전주한옥마을의 태조로와 은행로, 향교길 등을 중심으로 얼음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세계잼버리 기간 중 전주한옥마을 찾는 세계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한옥마을 중심인 태조로를 중심으로 얼음길을 조성했다.

이어 이번주 금요일인 8월 4일을 시작으로 8월 19일(매주 금·토·공휴일)까지 전주한옥마을의 주요 도로에 대형 얼음을 비치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얼음(1.2미터, 50센티미터, 25센

티미터)을 한옥마을 주요거점 20곳에 각각 2개씩 비치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선물한다.

이와 함께 시는 대형 얼음 비치에 끝나지 않고 얼음 상태와 안전 문제 등을 수시로 확인해 오가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소장은 "한옥마을 얼음길 조성은 폭염에도 한옥마을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위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의 니즈에 맞춰 한옥마을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복 새만금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역연계사업



전주한옥마을에 얼음이 비치된 모습.

을 통해 하루 400명의 세계 청소년에게 전주의 맛과 멋을 선보이고 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방문행렬이 이어

지면 50여 개국, 32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육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